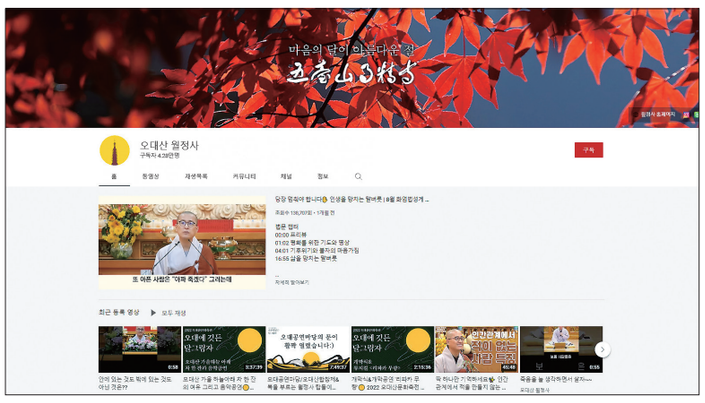
월정사, 사찰 유튜브 최초 구독 4만명 달성

2020년 '오대산 월정사' 채널개설 후 2년만의 성과

유튜브 신행 스트리밍으로
팬데믹, 비대면 소통 일조
최근 사중 행사 콘텐츠화
온라인 축원 · 쇼츠 제작도
직접 참여 신도수 증가추세
1만 온라인회 구성, 시너지



사찰 유튜브 최초로 구독자 4만 명을 넘어선 유튜브 채널 오대산 월정사.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오대산 월정사'가 10월 사찰 유튜브 중 최초로 구독자 4만명을 넘어섰다. 월정사는 이를 바탕으로 온 · 오프라인 포교의 새로운 계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월정사는 10월 17일 서울 조계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대산 월정사' (www.youtube.com/c/오대산 월정사) 채널 구독 4만명 달성 및 향후 계획을 밝혔다.

월정사는 채널 개설 초기부터 유튜브 스트리밍을 활용한 일일 신행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매일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사시불공과 금강경 기도, 명상프로그램 '불꽃 속에 피는 연꽃' 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인 시기에도 신도와의 활발한 소통을 형성했다.

또 사중에서 봉행되는 다양한 법회와 행사를 영상 콘텐츠화하고 온라인 축원 도입, 쇼츠 제작 등 유튜브 플랫폼에 적합한 전달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했다.

이러한 월정사의 시도는 구독자 증가로 이어졌고, 기존 신도가 유튜브로 유입되던 구조는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 사찰의 새 신도 유입으로 확장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종식 후 영상으로만 접하던 법회와 행사를 직접 보기 위한 신도들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월정사는 현재 스님 1명과 재가자 3명으로 이뤄진 뉴미디어팀을 운영중이다. 사찰 차원에서는 이례적으로 교계 미디어의 뉴미디어팀과 맞먹는 수준이다. 주지 정념 스님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사중 스님들의 동참도 활발하다. 실시간 법회에서 뉴미디어팀이 댓글에 답해주고, 신행상담 등을 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월정사 기획국장 월엄 스님은 "유튜브 채널이 무엇보다 산중 사찰의 이미지 제고에 큰 역할을 했다. 스님들도 흥이 나서 참여하고, 채널 운영 노하우를 배워 각자의 유튜브 채널 운영에도 나서고 있다"며 "이제는 실질적으로 사찰운영에도 도움이 되는 홍보채널로 발돋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월정사는 향후 온라인 기도회원 1만 불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온라인에서 기도법회, 그리고 명상프로그램에 동참하는 회원모임을 구성하고 자연스럽게 오프라인 행사에도 참여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

이병섭 월정사 기획팀장은 "월정사 사중에서 기도 · 신행활동과 함께 전통문화 향유와 명상과 치유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관심이 많고 그만큼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월정사 유튜브 채널 활성화에 일조한 교무국장 자현 스님은 "비슷한 시기 만들어진 사찰 유튜브들이 채널 성장에 정체를 겪고 있는 와중에 지속적인 구독 및 시청자 상승세를 보이는 월정사 유튜브 채널은 모범적인 사찰 운영 사례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자현 스님은 개인 유튜브 채널 2개(자현 스님의 불교공부, 자현 스님의 쏘댕기기)를 운영하며, 22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스님 인플루언서다.

자현 스님은 "사찰, 특히 산중 사찰의 경우 오프라인에서 모여야 몇천명 수준이지만, 온라인에서는 몇십만이 될 수 있다. 유튜브 채널 하나만 잘 키워내면 수말사 하나가 생긴 것 같은 포교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불교계에서 모두가 뉴미디어라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적절한 대응, 그리고 방향설정, 꾸준한 투자 등으로 성과를 내는 곳은 소수에 불과하다. 월정사 사례를 바탕으로 종단 차원의 뉴미디어 채널 활성화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고성 옥천사, '찾아가는 마음약방 콘서트'

마가 스님, 취임식 대신 마련 눈길
10~12월 마지막 주 목, 경상대서



지난 8월부터 고성 옥천사 주지로 부임해 포교와 전법에 진력하는 마가 스님(자비명상 이사장)이 취임식 대신 마음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해 화제가 되고 있다. 마가 스님은 10월~12월 마지막주 목요일 저녁 7시 경상국립대 대학본부 2층 대강당에서 '옥천사의 찾아가는 마음약방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마음약방 콘서트는 △10월 27일 행불선원장 월호 스님의 '행복 알약 3종 세트' 법문과 불자가수 김무한 씨의 공연 △11월 24일에는 마가 스님의 '자비명상' 법문과 영화 '불효자' 상영, 붓다라마 최진규 씨의 공연 △12월 29일에는 해인사 상임포교사 광우 스님의 '나무아미타불! 노래하자' 법문과 비구니 가수 현진 스님의 공연 등으로 꾸며진다. 기존 법회의 틀에서 벗어나 마가 스님의 사회와 찬불가를 곁들인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되며 참가자들과의 즉문즉답 시간도 이어진다.

고성 옥천사 주지 마가 스님은 "조계종 신임 총무원장 진우 스님께서도 강조하셨듯이 포교와 전법은 이 시대 사부대중의 사명"이라며 "교구본사 쌍계사 주지 영담 스님께서도 임명장을 수여하시며 경남 서남권 포교를 활성화하고 불교계에 생기를 불어넣어달라는 간곡한 부탁이 있어 찾아가는 특별법회를 준비했다. 고성과 진주는 물론 영남 지역 불자 및 시민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마가 스님은 "아픈 마음을 치유하고 나누는 일은 우리 시대에 너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며 "옥천사가 마음약방의 총본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마가 스님은 향후 창원과 고성에서도 마음약방 콘서트를, 옥천사에서는 매주 일요일마다 상설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마가 스님은 "그동안 지역 포교에 진력해온 옥천사는 앞으로도 마음약방 운영, 템플스테이, 청소년 명상캠프, 불교대학을 비롯한 여러 프로그램과 초하루, 보름법회를 비롯한 다양한 법회로 불자들을 만나겠다"고 덧붙였다.

옥천사는 이와 함께 사찰의 대표적 유물인 옥샘을 활용한 다양한 치유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청소년 힐링캠프, 실직자를 위한 자기점검 명상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기획중이다. 특히 최근 화엄종주 여천당 무비 대강백으로부터 전법게를 받은 마가 스님은 11월부터 전법제자 10명과 함께 옥천사에서 〈보현행원품〉을 온오프라인으로 릴레이 강연도 진행한다. 한편 옥천사는 또 일제 강점기에 전개한 옥천사 스님들의 독립운동 선양사업도 적극 펼치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태극기 그리기 대회, 애국가와 독립선언서 쓰고 외우기 대회를 곁들인 개산(676년 의상 대사 창건) 문화재도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



중앙신도회, 영호남 불교도래지서 행복바라미

백제불교최초도래지에서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펼쳐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날마다좋은날(이사장 주윤식)이 주최하고 2022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2022 행복바라미'가 10월 9일 영광 법성포 마라난타사(주지 청마)에서의 대축전을 시작으로 2022년 행사를 시작했다.

날마다좋은날은 10월 27일 조계사, 11월 13일 경북 구미 초전법륜지에서 '2022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을 이어간다.

이번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은 영호남 불교 뿌리를 찾고 성역화 하기 위한 첫발로 백제불교최초도래지와 신라불교최초도래지에서 문화축전을 개최하는 의미가 있다.

10월 9일 축전에서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은 "행복바라미가 10주년을 맞아 코로나19로 지친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기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대축전을 펼친다"며 "영호남 불교 뿌리를 찾고 성역화하기위한 첫 발로 백제불교최초도래지를 찾았다"고 말했다.

중앙종회 부의장 만당스님(영광 불갑사 주지)은 축사에서 "행복바라미 축전의 문화공연과 나눔실천으로 위축된 마음을 날려버리고 나눔 축제로 축전을 이끌자"고 강조했다.

이날 법성포 해변 특설무대에서는 행복바라미 모금을 비롯하여 한두레마당예술단의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다. 노덕현 기자

4차 산업, 김원수 법사에게 '불교 역할' 듣는다

10월 29일 세종대 컨벤션홀서 특별강연
4차산업 시대 인간소외 해법 제시
불안과 위기 시대 지혜, 전략 모색



불교계 선지식인 '김원수' 법사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간 소외의 해법'을 주제로 특별강연한다. 백성욱박사 교육문화재단(이사장 김원수)은 10월 29일 오전 10시 서울 세종대 컨벤션홀에서 김원수 법사 초청 특별강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에서 김원수 법사는 인공지능 도입으로 인한 대량 실업과 양극화, 그리고 최근의 경제 문제 등 사회적 불안과 위기를 개인이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명쾌한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여유롭고 자신감 있는 사회경제적 생활을 개척해나가기 위해서 佛法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 일상 언어로 실감 나고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

강연은 약 2시간가량 진행되며 청중들을 대상으로 김원수 법사가 즉석에서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참가비 무료. 김주일 기자

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 대국민 공모전 시상식

10월 18일 개최… 사진 · 영상 · 일러스트 등 시상



템플스테이 20주년을 맞아 진행된 대국민 공모전 대상에 김세웅(일러스트), 장성태(영상), 신다혜(사진), 성윤후(그림), 김도연(수필) 씨가 수상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명, 이하 문화사업단)은 10월 18일 '템플스테이 20주년 대국민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사진〉 대상 수상자 시상식은 총무원장 접견실에서, 최우수상 등 수상자 시상식은 템플스테이정보센터 1층 홍보관에서 진행됐다.

템플스테이 20주년을 맞아 열린 대국민 공모전에는 449점이 응모했으며, 심사를 거쳐 총 67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시상 직후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템플스테이의 의미를 작품을 통해 표현해줘 감사하다. 템플스테이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